

碩士學位論文

한 · 일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 고찰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高京淑

2004年 12月

# 한·일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 고찰

指導教授 李昌益

高京淑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高京淑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A Study on the Meaning of Time  
between Korean · Japanese Spacial Concepts

Kyeong-sook Ko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ik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4. 12.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한·일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 고찰

高京淑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指導教授 李昌益

시간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공간에 비해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구체적이며 인지하기 쉬운 공간개념어를 빌어 때를 나타내기도 한다. 공간개념어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공간적 의미범주가 1차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적용범주가 시간영역으로 의미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 변화는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지각능력과 관련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일어의 공간개념어 중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이러한 의미 확장을, 인간의 기본적인 공간인지습관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어의 전후관계어 ‘앞’과 ‘뒤’, ‘まえ・さき’, ‘しろ・あと’는 각각 시간적 의미로도 전용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앞’과 ‘뒤’는 공간적으로는 서로 대립을 이루지만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시하기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본어의 ‘まえ’나 ‘あと’, ‘さき’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으로 파악하느냐, 그 반대의 흐름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인지적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화자와 서로 마주보고 흐른다는 인지습관에 따르면 ‘앞’이나 ‘まえ・さき’가 ‘과거’, ‘뒤’와 ‘あと’가 ‘미래’를 나타내고, 시간이 화자가 향한 방향과 평행하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고 보는 인지습관에 따르면 ‘앞’과 ‘まえ・さき’가 ‘미래’, ‘뒤’와 ‘しろ’가 ‘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일어의 상하관계어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적 의미로 전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공간적으로 상부를 나타내는 ‘위’는 시간상에서는 대부분 ‘과거’를 나타내고, ‘아래’와 ‘밑’은 각각 ‘미래’와 ‘과거’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

해 일본어의 ‘うえ’는 대부분 ‘미래’ 의미를 나타내고, ‘した’는 대부분 ‘과거’ 의미를 나타내어 한국어와 대체적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일어의 내외관계어 중 일정한 경계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나타내는 ‘안’과 ‘うち’는 시간적 용법으로 전용되어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물을 컨테이너처럼 영역화하여 내부와 외부를 파악하는 인지습관이 시간에도 투영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1. 연구 목적과 범위 .....	1
1-2. 선행연구 .....	2
II. 한·일어의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 .....	4
2-1. 전후관계어 .....	4
2-1-1. 한국어의 전후관계어(앞/뒤)의 공간적 위치 .....	4
2-1-2. 한국어의 전후관계어(앞/뒤)의 시간적 의미 .....	6
2-1-3. 일본어의 전후관계어(まえ・さき/うしろ・あと)의 공간적 위치 .....	11
2-1-4. 일본어의 전후관계어(まえ・さき/うしろ・あと)의 시간적 의미 .....	15
2-1-5. 한·일 전후관계어의 비교대조 .....	21
2-2. 상하관계어 .....	23
2-2-1. 한국어의 상하관계어(위/ 아래・밑)의 공간적 위치 .....	23
2-2-2. 한국어의 상하관계어(위/ 아래・밑)의 시간적 의미 .....	25
2-2-3. 일본어의 상하관계어(うえ/ した)의 공간적 위치 .....	28

2-2-4. 일본어의 상하관계어(う え/した)의 시간적 의미 .....	30
2-2-5. 한·일 상하관계어의 비교대조 .....	32
2-3. 내외관계어 .....	33
2-3-1. 한국어의 내외관계어(안)의 공간적 위치 .....	33
2-3-2. 한국어의 내외관계어(안)의 시간적 의미 .....	35
2-3-3. 일본어의 내외관계어(うち)의 공간적 위치 .....	36
2-3-4. 일본어의 내외관계어(うち)의 시간적 의미 .....	38
2-3-5. 한·일 내외관계어의 비교대조 .....	39
<b>Ⅲ. 결론</b> .....	41
참고문헌 .....	43
Abstract .....	46



# I. 서론

## 1-1. 연구 목적과 범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세계를 인식한다. 따라서 언어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시간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구체적이며 인지하기 쉬운 공간개념어<sup>1)</sup>를 빌어 때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법, 어휘구조에서 시간의 공간화는 세계 어느 언어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sup>2)</sup>이며,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 · 앞에 할 말 뒤에 하고 뒤에 할 말 앞에 하고

· 6개월 안에 중동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 出るまえに何か作ってあげようか。

· 若いうちが花だ。

· お母さん、話はあとで、さきにあいさつと段取りをしとかないと。

공간개념어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공간적 의미범주가 1차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적용범주가 다른 영역(시간)으로 의미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 변화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지각능력과 관련된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공간개념어의 이러한 의미 확장이 공간관계를 지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습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을 어휘는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개념어

1) ‘공간개념어’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의 위치, 방향, 크기, 거리, 상태 등을 인식하는 지각능력 곧 공간지각을 통하여 얻는 개념어를 총칭하는 용어로, 박경현(1985)의 표현을 빌려 왔다. p1

2) 김선희 (1988),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 7. p5

3) 언어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겨난 도구이므로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분석에 지각·인지 능력은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주장은 이기동(1981)등에 의해서 익히 이루어져 왔다.

로, 전후관계어 중 ‘앞/뒤’와 ‘まえ・さき/うしろ・あと’, 상하관계어 중 ‘위/ 아래・밑’과 ‘うえ/した’, 내외관계어 중 ‘안’과 ‘うち’이다. 내외관계어 중 외부를 나타내는 ‘밖’과 ‘そと’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이들이 공간개념어로서만 사용되고 시간개념어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개념어들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언어요소와 결합하여 복합형태로 쓰이는 경우(예: 옷거름-과중한 다음, 옮겨 심은 다음에 주는 거름. 下ごしらえ-사전 준비. 요리 등에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대충 만들어 둬도, 사전에 올라 있는 한 연구대상에 넣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한·일어의 공간개념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만 혹은 일본어만의 개별언어로서는 익히 이루어져 왔으나, 양 국어의 비교대조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임지룡(1980)이 「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연관시켜, 공간어에서 시간어로의 전이에 대해 논하였다.

이후 박경현(1985)에 의해 본격적인 공간개념어의 의미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의 박사 학위 논문 「현대국어 공간개념어의 의미 연구」에서는 공간개념어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사례를 모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지영(1989)은 「{안/속/밖/겉}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내외개념어인 안과 속, 밖과 겉의 기본적인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인지의미론적<sup>4)</sup> 방법으로 고찰하고 있다.

일본어의 공간개념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했다.

初山洋介(1992)는 「多義語の分析—空間から時間へ—」에서 공간을 기본의미로 하는 명사는 시간적 의미로도 전용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시간을 1차적인 의미로

---

4) 자연 언어의 다양한 구조와 의미의 복잡성은 언어 자체의 구조를 통해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 관한 경험과 이해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사고의 구조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인지의미론의 입장이다.(오예옥 (2004),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p16)

하는 어휘는 공간적 의미로는 전용될 수 없음을 실례를 들어 증명하고, 구체적인 위치관계의 공간개념어를 1차적인 의미로 하는 말이 시간을 표현할 때 모델로 전용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에서 보아 자연스러운 일이라 정리하고 있다.

또한 渡辺実(1995)는 「所と時の指定に関する語の幾つか」에서, 공간 표현에 사용되는 말 중 시간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것들은 공간적 의미가 시간표현에도 이어지고 있어 각각의 용법을 특징짓고 있음을 さき, あと, まえ, しろ, うち, そと, なか, あいだ의 경우를 들어 논하고 있다.

양경모(1998)는 「<内外>의 공간 개념과 은유적 확장」에서 <内外>라는 공간 개념이 은유라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통해 공간 개념과는 다른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일본어의 うち와 内(ない)의 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定延利之(1999)는 「空間と時間の関係—「空間的分布を表す時間語彙」をめぐって」에서 종래의 학설과는 반대로, 어휘의 시간적 용법이 기본이며 공간적 용법이 파생적인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砂川有里子(2000)는 「空間から時間へのメタファー」에서 공간개념이 시간개념을 나타낼 때, 그 변화의 바탕이 되는 것은 원래 단어의 의미와 새로운 단어의 의미 사이의 비유적 유연성(比喩的な類縁性)<sup>5)</sup>이라 주장하고, 동사와 명사가 공간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형태, 통어, 의미적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일 양국어를 대상으로 한 비교대조연구로서는 加藤弘(1999)의 「韓・日語の時間表現-時間表現の矛盾を解く-」가 있다. 加藤는 전후개념어인 ‘앞, 뒤, 전, 후’와 ‘まえ, さき, しろ, ぜん, ご’를 대상으로 하여, 양 국어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양 국어 모두 같은 표현이 과거의 의미도 미래의 의미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 ‘시간열차’<sup>6)</sup>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加藤의 연구는 한·일어의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5) ‘類縁性’이라는 것은 비슷한 성질, 일종의 동족적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공간적 범주에서 갖는 기본의미를 시간적 범주에서 사용될 때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범주 사이에는 類縁性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6) 加藤弘의 ‘시간열차’는 시간의 흐름을 열차가 지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 개념이다.

## II. 한·일어의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

### 2-1. 전후관계어

인간은 상하, 전후, 좌우라는 3차원 공간 속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며 존재한다. 그 가운데 전후는 좌우와 함께 수평차원을 이루는 요소이다. 인간의 몸은 한 면에는 주요 지각기관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그것이 없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지각 기관이 있는 면은 ‘앞/まえ・さき’와 관계되고 그 반대편은 ‘뒤/しろ・あと’와 관계된다.<sup>7)</sup> 이 장에서는 전후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개념어 한국어의 ‘앞/뒤’, 일본어의 ‘まえ・さき/しろ・あと’의 기본 의미가 어떻게 시간적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1-1. 한국어의 전후관계어 (앞/뒤)의 공간적 위치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을 가리키며, ‘뒤’는 ‘향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되는 쪽이나 곳’을 가리킨다.<sup>8)</sup> ‘향하고 있는 쪽’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전후 위치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9)</sup>

사물에 따라서는 방향성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나 인형, 동물처럼 고유한 생김새에 따라서 그것의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은 얼굴 특히 눈이 향하는 곳을 ‘앞’이라 하고 그 반대편을 ‘뒤’라 한다. 그리고 얼굴이나 지각기관을 갖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자체의 정면에 해당하는 방향이 ‘앞’, 그 반

7) 오예옥(2004)은 ‘우리는 우리의 신체, 또는 우리 주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들이나 물질들을 통해, 위/아래, 앞/뒤, 가운데/주변, 가까운/먼 같은 공간적인 방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p99

8) 김민수 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p711,277

9) 박경현(1985)은 공간개념어들은 대상이 본질적(고유한 생김새에 의해 방향을 구분), 전형적(기능적 속성이나 습관적 인식에 따라 방향을 구분), 상황지시적 방향체계(인식자의 자기중심적 방향체계로 방향을 구분) 가운데 어떤 체계를 가지는 것이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p8

대쪽이 ‘뒤’가 된다.

1) 숨이 차는지 다리가 휘청거리는 지도 모르고 우리는 앞만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서 인왕산을 바라고 뛰었다.

2) 뒷머리가 길다 (『표준국어대사전』)

3) 소는 앞다리를 꺾었다. 그러자 가벼운 먼지를 일으키며 육중한 몸뚱이가 모로 쓰러졌다. (최인훈, 『회색인』)

4) 깊어가는 가을 밤 시청 앞에서 이탈리아 패션쇼가 펼쳐진다. (서울신문04.10.29)

1)에서 ‘앞’은 ‘얼굴 혹은 눈이 향하는 쪽’을 말한다. 2)의 ‘뒷머리’는 ‘얼굴 반대편의 머리카락’을 나타낸다. 3)의 ‘뒷다리’ 역시 ‘얼굴에서 먼 쪽의 다리’를 지칭하고 있다. 4)는 지각기관은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의 정면 쪽을 ‘앞’이라 하는 예이다.

방향성을 가진 대상 중에서도 차나 비행기와 같이 스스로 움직이는 대상은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쪽이 ‘앞’이고 그 반대편이 ‘뒤’가 된다.

5) 엔진이 버스 뒤쪽에 있어서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YTN뉴스04.11.1)

5)의 버스의 경우는 굳이 움직이는 쪽이라 명시하지 않아도 생김새로 앞뒤관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지하철이나 그 밖의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대상의 경우에는 전후의 판별기준은 반드시 ‘움직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이 산이나 나무, 바위처럼 본질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지시적으로 전후관계를 구분하다. 다시 말해서 화자나 청자가 대상을 마주보는 쪽으로 인식하는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앞뒤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바위-나무’ 순으로 서 있을 경우 내가 바위, 나무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A)와 바위, 나무가 내가 얼굴을 향하는 쪽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B)를 비교해 보면 같은 위치인데도 아래와 같이 앞과 뒤를 달리 표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A. 나⇒바위⇐나무 )

(B. 나 ⇒바위⇒나무)

ㄱ. 바위가 내 앞에 있다

바위가 내 앞에 있다.

ㄴ. 바위가 나무의 앞에 있다

바위가 나무의 뒤에 있다

ㄷ. 나무가 바위의 뒤에 있다

나무가 바위의 앞에 있다

ㄹ. 나무가 내 앞에 있다

나무가 내 앞에 있다

ㅁ. 내가 바위 앞에 있다

내가 바위 뒤에 있다

ㅂ. 내가 나무 앞에 있다

내가 나무 뒤에 있다

7) 커다란 수국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엔 롤링,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5-1)

8) 상자 앞에 연필을 놓으세요(<http://kr.kids.yahoo.com/study/scien/index.html>)

7)의 예는 상황적으로 ‘그-수국-길’이라는 공간적 구도를 (B)식(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관계)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이다. 수국(꽃의 한 종류)은 자체 방향성을 갖지 못한 대상이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쪽으로 면한 부분을 ‘앞’이라 하고 그 반대편을 ‘뒤’라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8)의 상자 역시 본질적으로든 전형적으로든 전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명령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청자 쪽에 가까운 앞인지 화자 쪽에 가까운 앞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동작하는 사람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후관계는 대상이 방향성을 가진 경우에는 향하는 쪽이 앞이 되고 그 반대가 뒤가 되지만, 방향성이 없는 대상의 경우에는 화자나 청자의 인식 방향에 따라 앞뒤가 달리 파악될 수 있다.

## 2-1-2. 한국어의 전후관계어(앞/뒤)의 시간적 의미

공간상에서 전방을 뜻하는 ‘앞’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9) 앞에 할 말 뒤에 하고 뒤에 할 말 앞에 하고 (『표준국어대사전』)

10) 우리나라에 앞서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수입쌀 처리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문화일보04.11.17)

11) 가끔은 의리 앞세우다 손해 본 경우도 있죠. (문화일보04.5.22)

9)의 ‘앞’과 ‘뒤’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순서상 먼저 할 말’과 ‘나중에 할 말’을 나타내는데, 위 예문은 ‘일의 차례가 뒤바뀌었음’이라는 비유적 의미로서도 사용된다. 10)은 일본과 대만이 시장을 개방한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먼저’임을 ‘앞서’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11)의 ‘의리를 앞세우다’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의리를 생각하여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예문들에 쓰인 ‘앞’은 전부 시간 순서로 보아 발화시나 사건시보다 ‘먼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앞’이 시간적 의미에서 ‘먼저, 이전’이라는 과거시(過去時)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앞’을 접두사로 하는 파생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앞같이, 앞선음, 앞차, 앞세대...10)

이상은 ‘앞’이 ‘먼저, 이전’이라는 전시(前時) 즉, ‘과거’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11) 그러나 ‘앞’이 시간 상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있다.

13) 은행 빛이 수천만원으로 계속 늘기만 해 앞이 캄캄했지만...

(조선일보04.10.28)

14) 염상진의 말은...암담하게만 여겨지는 앞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 쏟아졌다. (조정래, 『태백산맥』)

15) 프로배구가 출범을 앞두다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04.10.18)

13)의 ‘앞’은 미래를 나타내며,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한 가닥 희

---

10) 예12)는 이희승(1986) 『대국어사전』,민중서림.에서 발췌하였다.

11) 이 논문에서는 기준시보다 전시(前時)에 해당하는 것(먼저, 이전, 과거)은 ‘과거’로, 후시(後時)에 해당하는 것(나중, 장래, 이후)은 ‘미래’로 규정하기로 한다.

망도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다. 14)의 ‘앞길’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 뜻으로 미래를 나타낸다. 15)의 ‘앞두다’는 ‘닥쳐올 때나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프로배구의 출범은 미래의 일이 된다.

아래의 파생어들도 ‘앞’이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18) 앞생각, 앞차다, 앞잡은소리…<sup>12)</sup>

이처럼 ‘앞’이 ‘과거’와 ‘미래’로 다 쓰임으로 인해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과거’의 의미로도 ‘미래’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예도 나타난다.

19) 앞말, 앞날…

‘앞말’은 ‘앞으로 할 말’(미래), ‘앞에서 한 말’(과거)이란 뜻으로 쓰이며, ‘앞날’ 역시 ‘앞으로 닥쳐올 날이나 때’(미래)와 ‘전날’(과거)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앞’은 기준시(基準時) 이전을 나타내는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준시 이후인 ‘미래’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다.

다음은 ‘앞’과 의미대립을 이루는 ‘뒤’의 시간적 의미를 살펴보자.

- 20) 송장은 경수 교무에게 감사를 표한 뒤, 아이들에게 조용히 일렀다. (남지심, 『담무갈4』)
- 21) 추석 뒤 아파트 값 하락세 커져… (중앙일보04.10.8)
- 22) 자식의 뒷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표준국어대사전』)

20)의 ‘뒤’는 아이들에게 이르는 행위가 감사를 표하는 행위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21)에서는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커지는 사건은 추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22)의 ‘뒷길’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살아갈 길’, 즉 ‘미래’를 뜻한다. 위의 세 가지 예에서 쓰인 뒤(뒷)는 모두 시간적으로는 ‘이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뒤’가 시간적으로 후시(後時)를 나타내는 표현은 ‘뒤’를 접두사로 하는 파생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12) 예18)은 이희승(1986)에서 발췌하였다.

23) 뒷맛, 뒷자손, 뒷북치다, 뒷사람, 뒷생각...<sup>13)</sup>

한편, ‘뒤’가 ‘과거’를 나타내는 예도 존재한다.

24) 애들 생각해서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라.

위 예문의 ‘뒤’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해당한다. 그것도 ‘ 좋지 않은 과거’이며, ‘앞’은 그와 대조를 이루어 ‘희망찬 미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성공 가능한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나 ‘뒤’가 과거를 나타내는 예는 미래를 나타내는 예에 비한다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에서 보자면 ‘앞’이라는 한 단어가 경우에 따라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며, ‘뒤’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래의 예와 같이 공간적으로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앞’과 ‘뒤’가 시간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공간적 의미에서는 서로 상반된 의미의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얼핏 모순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sup>14)</sup>

첫째, 인간 및 세계와 시간은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방법이다. 즉, 인간과 세계는 ‘과거→현재→미래’로 향해 흐르고, 시간은 ‘미래→현재→과거’로 향해 흐른다고 보는 관점이다.<sup>15)</sup> 자기를 열차 승객이라고 생각해보자.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는 이름의 승객은 열차와 더불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달린다. 그러나 승객 입장에서는 지상의 풍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창 밖의 풍경을 미래 쪽에서 다가와 ‘나’의 현재라는 순간을 지나가고 과거 쪽으로 달아난다. 이 때 열차가 달리는 방향이 ‘앞’이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대응하며, 그 반

13) 예23)은 이희승(1986)에서 발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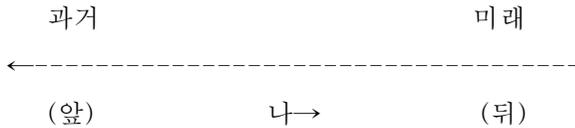
14) 吉本一(2002)와 加藤弘(1999)는 시간의 흐름을 ‘화자와 마주보고 흐른다고 보는 경우’와, ‘화자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그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기로 한다.

15) 吉本一(2002),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담화와 인지』 제 9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4

대방향이 ‘뒤’가 되어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대응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둘째, 인간 및 세계도 시간도 ‘과거→현재→미래’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 표현하는 방법이다.<sup>16)</sup> 열차 승객이 된 ‘나’는 창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차의 앞자리에 앉아서 앞을 보고 간다고 상상했을 때, 과거는 나의 시야 뒤로 사라져 버리고 나는 열차와 함께 눈 앞의 미래를 보며 여행을 즐기는 셈이 된다. 이 때 열차가 움직이는 방향이 ‘앞’이 되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대응한다. 또 그 반대방향이 ‘뒤’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대응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림 2>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화자가 같은 방향에서 파악하면 ‘앞’이 ‘미래’를, ‘뒤’가 ‘과거’를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미래’를 나타내는 ‘앞’은 ‘앞길, 앞날, 앞으로, 앞일’ 등 그 예가 풍부한 반면, ‘과거’를 나타내는 ‘뒤’의 예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후방(後方)을 나타내는 공간개념어가 과거를 나타내는 예가 적은 현상은 일본어에서도 나타나는데, 渡辺実(1995)는 이에 대해서 ‘화자 자신이 이동체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방향에만 눈이 향하기 십상이라, 뒷방향은 경시하게 되어 결국은 잊혀지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논하고 있다.<sup>17)</sup>

16) 吉本一(2002),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담화와 인지』 제 9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2

위의 두 가지 시간 흐름의 파악 방법은 공간에서 전후방향의 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자체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바위나 나무와 같은 경우는 상황지시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앞에서 논하였다. 즉, 나-바위-나무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나와 바위·나무를 같은 방향으로 파악하느냐, 마주보는 관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앞뒤가 달라졌던 것처럼, 시간 표현에 있어서도 시간을 공간화시켜 화자와 시간을 마주보고 흐르는 관계로 파악하느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관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적 선후관계를 결정짓는 원리는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방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 2-1-3.일본어의 전후관계어 (まえ・さき/ しろ・あと)의 공간적 위치

한국어의 전후관계어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대상이 가지는 방향성임을 언급하였다. 일본어의 경우도 전후관계를 파악할 때 이러한 방향성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공간개념어가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보편소이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일본어에서도 눈이나 지각기관 혹은 정면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그 쪽이 전방(前方)이 되고 그 반대쪽이 후방(後方)이 된다. 또한 차나 비행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움직이는 방향이 전방이 되며, 자체 방향성을 갖지 못한 대상은 상황지시적으로 전후를 파악해야 한다.

일본어의 전후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상술은 2-1-1과 중복되므로 이 장에서는 생략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예를 확인하고, **まえ・さき・しろ・あと**의 어원을 살펴 그 기본적인 공간적 위치를 확인하기로 하겠다.

#### (1) **まえ/しろ**

**まえ/しろ**는 원래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로, 고어에서 **まえ**(前)는 ‘**まへ**(目方)’, 문자 그대로 ‘눈이 향하는 쪽’을 지시하는 말이었으며, 그 반대방향에 해당하는 ‘**しろ**’는 원래 **身(ミ)**의 옛 형태 ‘**ム**’와 ‘**シリ**’(尻·後)의 옛 형태

17) 渡辺実(1995), 「所と時の指定に関わる語の幾つか」. 『国語学』 181.国語学会. p23

18) 박경현(1985). p3

‘シロ’가 결합한 ‘ムシロ’가 변화한 형태이다.<sup>19)</sup> 옛날에는 まへ(目方)와 しりへ(尻方)를, 중세 이후에는 まへ와 しろ를 각각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まえ는 ‘눈이 향하는 쪽’, しろ는 しりへ‘엉덩이 쪽 혹은 향문 쪽’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선의 방향은 ‘まえ’ 즉, ‘전방’이며, 그 반대 방향은 ‘しろ’, ‘후방’이다.

25) ふとをまえ見ると、黒板に見慣れた友達の文字がありました。

(小さな親切運動本部編, 『涙が出るほどいい話』 第九集) 20)

(문득 앞을 보니, 칠판에 눈에 익은 친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6) くたびれて元氣なく歩いているとしろから、「兵隊さん、兵隊さん」と呼び止められた。

(小さな親切…)

(녹초가 되어서 기운없이 걷고 있었다더니 누군가 ‘군인아저씨, 군인아저씨’ 하고 불러서 멈춰 섰다.)

27) 自分は持ってきた花束を墓のまえへおいて、祖母のいる麻布の家へ向かった。

(志賀直哉, 『和解』)

(나는 가지고 온 꽃다발을 무덤 앞에 두고, 할머니가 계시는 마부 집으로 향했다)

28) 帰宅途中、私の車のまえになりしろになり、右になり左になり、ぴったりと付いてくるオートバイがある。

(小さな親切…)

(집에 돌아오는 도중 내 차의 앞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바짝 따라 오는 오토바이가 있었다.)

29) 梅の木のまえにある松の木

(森田良行, 『基礎日本語2』)

(매화나무 앞에 있는 소나무)

25),26)은 대상이 방향성을 갖는 존재로, 25)의 ‘まえ’는 화자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며, 26)의 ‘しろ’는 화자의 시선의 반대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27)의 お墓(무덤)은 지각기관은 없으나 글씨가 있는 새겨진 쪽이 ‘まえ’가 되고 반대쪽이 しろ가 되는 방향성을 가진 대상이다. 28)은 움직이는 방향이 まえ가 되는 대상이다. 단,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칭적 구조의 대상(예, 電車)은 이동하지 않고 멈춰

19) 大野晋ほか(1974), 『岩波古語辞典』, 岩波書店. p156

20) 이하 (小さな親切…)로 표시하기로 한다.

있을 때에는 인식자의 눈과 가까운 방향에 있는 운전석 쪽을 ‘まえ’라 할 수도 있고, 가늠하기 애매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에는 전후를 지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 29)는 대상이 눈도 없고 정면에 해당하는 방향성도 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예 문은 ‘話者 →梅の木 →松の木’와 같이 화자와 대상물을 같은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관계로 파악한 경우이지만, ‘話者 →梅の木 ←松の木’와 같이 대상을 마주보는 관계로 파악하면 ‘梅の木のうしろにある松の木’로 파악할 수도 있다.

(2) さき /あと

‘さき’는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끄트머리’<sup>21)</sup> 혹은 ‘튀어나와서 뾰족한 부분’<sup>22)</sup>을 뜻하는 말이다.

28) 病院の看護婦さんの右手には、針のさきがキラッと光る注射器を持っている。

(山本数学教室, 「まなざし」)

(병원 간호사의 오른 손에는 바늘 끝이 반짝거리는 주사기가 있었다.)

28)의 さき에서는 ‘뾰족한 끄트머리’라는 이미지와 함께 ‘앞’이라는 방향성이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주사기는 바늘 끝 쪽을 ‘앞’으로 인식하고 그 반대 방향을 뒤로 인식한다. 鉛筆の先 (연필 끝)이나 ナイフの先(칼 끝) 등도 마찬가지로 さき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앞’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さき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방’(前方)인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さき의 전방으로서의 성격을 확연히 느끼게 한다.

29) 工事のため、四月三日からここからさきは通行止となりました。ご協力ください。

(渡辺実, 『さすが!日本語』)

(공사 때문에 4월 3일 이후 여기서부터는 통행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これは二位の選手です。このさき50メートルを一位で走るのは日本の選手です。

(渡辺実, 『さすが!日本語』)

(이 사람은 2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50미터 앞을 달리는 것은 일본선수입니다.)

21) 大野晋ほか(1974), p544

22) 日本国語大辞典研究会(1976),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p652

‘さき’가 공간적으로 ‘전방’을 지시하므로 ‘まえ’(前)와는 유의관계(類義關係)가 성립된다. 그러나 ‘まえ’는 그 어원에서 보았듯이 ‘まへ’(目方)의 의미, 다시 말해 시각적으로 전방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さき’는 좀 더 아득하게 나아간 곳, 다시 말해 거리감이 느껴진다. 29)의 ‘さき’는 ここ라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방향으로 죽 이어진 길을 나타내고, 30)의 ‘さき’는 ‘二位の選手의 위치를 기준삼아 진행방향으로 50미터나 떨어진 거리’를 지시하고 있다. ‘さき’의 이러한 거리감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즉, ‘어떤 기준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 있는’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준다.

이어서 ‘あと’의 공간적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あと’의 어원은 ア(足)ト(所)로 추정되고 있는데, ‘발로 밟은 곳, 혹은 발이 있는 쪽’을 나타내며, 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서 경과한 자국, 흔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31) 字を書いて消したあとがある。 (『日語日昨文大辞典』)

(글씨를 썼다가 지운 자국이 있다)

32) 怪しい人のあとをつける。 (『日語日昨文大辞典』)

(수상한 사람의 뒤를 쫓는다)

33) 私のあとから来てください。 (『日語日昨文大辞典』)

(내 뒤에서 와 주세요)

31)은 ‘흔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32)의 ‘あとをつける’은 ‘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이 가는 곳으로 쫓아가다, 미행하다’는 의미로, ‘あと’에서 ‘후방’이라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33)은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あと’로, 공간적으로 ‘しろ’(뒤)를 나타내어 ‘さき’와 의미 대립을 이룬다.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시작되는 쪽을 ‘まえ’, 끝나는 쪽을 ‘しろ’라 한다. 그 에 비해 ‘あと’는 연속하는 것을 어떤 일부분에서 잘라 구획되었을 경우, 그 자른 곳을 기준으로 해서 본 뒷부분 혹은 뒷방향이다.<sup>23)</sup>

34) はい、あなたからあとはもう売り切れですから、また明日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

(森田良行、『基礎日本語2』)

23) 森田良行(1976),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p440

(자, 당신부터 뒤쪽은 매진이니까 내일 다시 와 주십시오)

34)의 ‘あと’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줄을 지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그 뒤쪽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없음을 말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あと’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영역화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연속하는 사물의 경우 ‘あと’의 앞부분에서 일단 ‘끝’이라는 느낌이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어의 전후 개념어 중 ‘まえ’와 ‘さき’는 전방을, しろ와 あとは 후방을 나타낸다. ‘まえ’는 대상의 눈이 있는 방향(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さき’는 ‘まえ’에 비해 거리감이 있는 전방을 나타내며, ‘あと’는 후방을 나타내는 말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중 일정한 기준의 뒷부분을 나타내는 공간개념어이다.

#### 2-1-4.일본어의 전후관계어 (まえ・さき/しろ・あと)의 시간적 의미

35) 出るまえに何か作ってあげようか (宮部みゆき, 『今夜は眠れない』) 24)

(나가기 전에 뭐 좀 만들어줄까?)

36) ねえ、まえから思ったけど、光君って変わっていると思わない。

(戸部けいこ, 『光とともに』)

(있잖아, 전부터 생각했었는데, 히카루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37) 彼はまえまえから、宝石を売りに出している会長とコネをつけるチャンスを狙っていたのだ。

(宮部みゆき…)

(그는 훨씬 전부터, 보석을 팔기 위해 내놓은 회장과 연결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35)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행위이지만, 나가는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 즉, ‘과거’(상대적 과거)에 이루어진다. 36)에서 ‘まえ’는 현재시(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37)의 ‘まえまえから’는 まえ를 두 번 겹쳐 씌므로써, 현재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훨씬 전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まえ’는 사건시 혹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의 예들도 ‘まえ’가 접두사로서 ‘미리, 사전에’라는 과거 의미로 사용된 파생

---

24) 이하 (宮部みゆき…)로 표시하기로 한다.

어들이다.

38) まえいわい(前祝), まえざく(前作), まえじらせ(前知らせ), まえだくみ(前工), まえび(前日), まえふれ, まえもって, まえやく(前厄) …25)

다음의 예들은 금전거래에 관계되는 어휘들로, 역시 ‘まえ’가 ‘미리, 이전’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금전거래는 돈을 주고받는 시간적 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간 표현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39) まえうり(前売), まえがし(前貸), まえがね(前金), まえがり(前借), まえかんじょう(前勘定), まえばらい(前払), まえわたし(前渡)…26)

이처럼 ‘まえ’는 ‘미리, 이전’을 뜻하는 ‘과거’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많은 데에 비해 ‘미래’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의 예를 보자.

40)新しい環境の中で家族が頑張っているのに、後ろを向いてばかりいた私。まえむきに、そう、のびのびやろう。 (小さな親切…)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족 모두가 애쓰고 있는데 뒤만 보고 있던 나. 앞을 보고, 그래, 힘차게 해보자.)

40)의 ‘まえむき’는 ‘적극적이며 발전적 태도’를 뜻하며, 발전이라는 개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시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まえ’는 시간적 의미로서는 대부분 ‘과거’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지만 ‘미래’의 의미로 전용되는 예도 없지는 않다.

다음은 공간적으로 뒤를 나타내는 ‘しろ’가 시간적 의미로 쓰이는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しろ’는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어로 인식되며, 실제로 현대일본어에서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아주 드물다.

25) 예 38)은 新村出(1995), 『広辞苑』 第5版, 岩波書店에서 발췌하였다.

26) 예 39)는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 41) しろを振り返るな。 (加藤弘, 「韓・日語の時間表現…」)  
(뒤를 돌아보지 마라)

위의 예에서 ‘しろ’는 ‘지나간 과거’를 뜻한다. 振り返란 동사는 ①‘뒤쪽을 돌아보다’란 뜻이 있지만, ②‘과거를 돌아보다, 회고하다’란 뜻도 있으므로, ‘しろ’와 함께 쓰여 ‘과거의 일은 생각지 마라.’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처럼 ‘しろ’는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만 사용되며 ‘미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방향적으로 전방(前方)을 나타내는 ‘さき’의 시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 44) 確かにその約束は果たされることになる。だけど、それはまだまださきのお話  
(宮部みゆき…)

(확실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

- 45) さきの見通しがつくと安心する。 (戸部けい, 『光とともに』)  
(앞일을 예견할 수 있으면 안심이 된다.)

- 46) 何だかさきが思いやられる初対面。 (戸部けいこ, 『光とともに』)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첫 만남이었다.)

위의 예는 모두 ‘さき’가 ‘미래, 훗날’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 46)의 ‘先が思いやられる’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길한 느낌이 들다, 혹은 걱정스럽다’이라는 뜻이다.

아래의 예들의 ‘さき’도 접두사로서 ‘미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47) さきいき(先行き), さきざき(先々), さきだか(先高), さきやす(先安), さきのばし(先延ばし), さきおくり(先送り) …27)

한편, ‘さき’는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27) 예47)은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48) 結論からさきに言えば、その晩、僕らはお母さんが用意した夕食を食べなかった。

(宮部みゆき…)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그날 밤 우리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49) お母さん、話はあとで、さきにあいさつと段取りをしとかないと。

(戸部けいこ, 『光とともに』)

(어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먼저 인사와 준비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50) さきほどの駅員さんが、こちらを向いて、マイクを手にニコニコしています。

(小さな親切…)

(아까 그 역무원이 이쪽을 향해 마이크를 손에 쥐고 웃고 있습니다.)

51) 僕が二人を乗せて、一足先に行ってい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宮部みゆき…)

(제가 두 사람을 태우고 한발 먼저 가 있기로 된 것입니다.)

48)에서 ‘結論から先に言えば’라는 것은 이야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자면 결론은 맨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 순서에 따르지 않고 결론은 먼저 말한다는 것이다. 즉 기준시는 정상적으로 말했을 때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상대적 과거)에 결론을 말하는 것이 된다. 49)에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을 ‘さき’로, 나중에 해야 할 것을 ‘あと’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50)에서는 ‘발화시 이전 상황’을 ‘さきほど’로 나타내었다. 51)의 ‘一足先’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조금 먼저’라는 뜻이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さき’도 접두사로서 ‘미리’라는 ‘과거’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52) さきがい(先買), さきがし(先貸), さきがかり(先借り), さきばらい(先払い), さきがね(先金) …28)

이는 모두 금전 거래에 관련된 용어들로 ‘まえ/あと’와도 관련이 된다.<sup>29)</sup> 일상에서는 이러한 금전 거래 관계의 파생어들은 사전에는 올라 있으나 일상에서는 ‘ま

28) 예52)은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29) 예39)와 59) 참조

え'를 접두사로 하는 것을 많이 쓴다고 한다.

한편, 경제 용어 중 'さきもの'(先物)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주고받을 조건으로 미리 매매 계약을 하는 것, 혹은 그 상품'<sup>30)</sup>을 뜻하여, '장래'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지, '미리'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先物'는 주식 시장 등에서 'さきものとりひき'(先物取引:선물거래), 혹은 'さきものがい'(先物買い:선물매입)라는 말들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미인 '現物取引'(현물거래), '現物買い'(현물매입)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주식 거래에서 '現物取引'는 '현재 있는 물품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하며 '그 물품을 사들이는 것'을 '現物買い'라 한다. 즉, '現物'의 본질적 의미는 '지금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先物'는 '장래 일정한 시기에'라는 것에 중심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先物'의 시간적 의미는 '미래'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さき'는 시간적 의미에서는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공간적으로 후방을 나타내는 'あと'의 시간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 일본어에서 후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しろ'는 시간적 의미로 전용되는 예가 드물었으나, 'あと'는 그와 달리 시간적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53) まま、その話はあとでゆっくり。 (宮部みゆき...)

(여보, 그 얘긴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54) 彼はちょうどそのころ死病の宣告をうけて、自分にはもうあとが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

(宮部みゆき...)

(그는 마침 그 즈음 죽을병이라는 선고를 받아 자신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5) あと十分ぐらいで支度できるから、手を洗ってらっしゃい。 (宮部みゆき...)

(앞으로 10분 정도면 준비되니까 손 씻고 오세요.)

56) あとから入った人の方が先に出てきた。 (戸部けいこ, 『光とともに』)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왔다)

30) 安田吉実, 손낙범 외(2001), 『옛센스일한사전』 제2개정판, 민중서림.

53)의 ‘あと’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54)의 ‘あとがない’라는 것은 중병에 걸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55)에서는 구체적 시간표현과 함께 쓰여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 시간만큼 더’ 라는 의미로 쓰였다. 56)에서는 ‘先’와 대비시켜 순서상 ‘나중’을 나타내었다. 위의 예에서 쓰인 ‘あと’는 모두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あと’가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복합형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57) あとあと (後味), あとあと (後々), あとかたづけ (後片付け), あとくち (後口), あとさく (後作), あとちえ (後知恵), あとしまつ (後始末), あとばら (後腹)…<sup>31)</sup>

이처럼 ‘あと’는 지금은 ‘미래’의 의미에 한정되어 사용되지만 192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과거’ 의미로 사용되었던 예가 있었다.

59) 3年あとに父を失った。 (『옛센스일한사전』)

60) あとげつの繰り返し (『옛센스일한사전』)  
(지난달의 이월)

59)는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3년 뒤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정도로 바꾸어 볼 수 있겠으나, 과거에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sup>32)</sup>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あと가 후시(後時)의 의미로만 정착되었다. 한편 60)의 あとげつ(後月)는 속어로 지난달, 혹은 전달이라는 뜻으로 사전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역시 지금은 쓰이지 않게 되어버린 말이다.

이상 일본어의 전후관계어가 시간적 의미로 쓰이는 예를 살펴보았다. 전방을 나타내는 ‘まえ’는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과거’와 ‘미래’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고, さき는 ‘과거’, ‘미래’ 모두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후방을 나타내는 ‘しろ’는 고어에서는 ‘과거’, ‘미래’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과거’의 의미로만 드물게 사용되고 있으며, ‘あと’는 1920년대까지는 ‘과거’, ‘미래’ 의미로

31) 예57)은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32) 安田吉実, 손낙범 외(2001). p49

다 쓰였으나 현대어에서는 ‘미래’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의 전후관계어는 대체로 양 시제로 모두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ㄱ을 제외하고 한쪽 시제로 정착되어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 단어가 경우에 따라 과거의 의미도 되고 미래의 의미도 되는 것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공간화 하여 파악하는 인식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まえ’와 ‘さき’가 ‘과거’를 나타내고, ‘あと’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미래에서 현재, 현재에서 과거의 방향으로 파악하는 인지습관에 의한 것이고(그림 1참조), ‘まえ’와 ‘さき’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しろ’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화자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이동하여 시간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향한다고 보는 인지습관에 기인한 것이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일본어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개념어의 시간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1-5. 한·일 전후관계어의 비교대조



이상 한·일 전후관계어가 시간적 의미로 전용되는 예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 현대 한·일 전후관계어의 시간적 의미

	과거	미래
앞	○	○
まえ(前)	○	△
さき(先)	○	○
뒤	△	○
うしろ(後ろ)	△	×
あと(後)	×	○

○ : 용례가 많고 일반적

△: 용례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거나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음

×: 용례가 없음

①한국어에서 전방을 나타내는 ‘앞’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전방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まえ와 きた로 분화되었는데, きた는 과거, 미래를 다 나타낼 수 있지만, まえ는 대부분 과거를 나타낸다.

②한국어에서 후방을 나타내는 ‘뒤’는 대부분 미래를 나타내며 과거를 나타내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에 비해 일본어에서는 후방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しろ와 あと로 분화되었는데, しろ는 시간적으로 전용되는 예가 드물뿐더러 과거에 한정되어 쓰이고 ‘あと’는 1920년대 이후 미래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

③한·일 전후관계어에서 모두 공간상에서는 한쪽만을 지정하는 말인데도 시간상에서는 과거와 미래 양 시제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으로 파악하느냐, 그 반대로 흐르는 것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인지적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고 보는 것은 화자와 시간이 서로 마주보고 흐른다는 인지습관을 나타내는 경우로, 이 때 ‘앞 · まえ · きた’가 과거, ‘뒤 · あと’가 미래를 나타내고, 시간이 화자가 향한 방향과 평행하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고 보는 인지습관에 따르면 ‘앞 · きた · まえ’가 미래, ‘뒤 · しろ’가 과거를 나타낸다. 그런데 양 국어에서 모두 후방을 나타내는 말이 과거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後は 과거 의미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보건대, 한·일 전후관계어가 그 분화 양상은 달라도 시간적 의미가 ④와 같이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간적 전후관계를 파악하는 인지습관이 동일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2-2. 상하관계어

인간은 중력의 작용을 받으며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이다. 중력의 영향으로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에 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신체를 기준으로 상하관계를 자연스레 지각하여왔다. 이 장에서는 상하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공간개념어 한국어의 ‘위/아래·밑’, 일본어의 ‘うえ/した’의 기본 의미가 어떻게 시간적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2-1. 한국어의 상하관계어(위·아래·밑)의 공간적 위치

#### (1) 위/아래

일반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방향은 ‘위’라 하고 중력의 작용하는 방향을 ‘아래’라 한다.

또한 연직선이나 수직선상의 일정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높은 쪽의 공간이나 위치를 ‘위’라 하고, 기준 보다 낮은 쪽의 공간이나 위치를 ‘아래’라 한다.<sup>33)</sup>

61)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타오릅니다. (이승현, 『단학』)

62) 바로 집 위가 산이고 집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민가들이 있다.

(이문희, 「흑맥」)

예 61)은 어떤 기준을 두고 상하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방향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62)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지대가 높은 위치를 ‘위’라 하였고, 낮은 위치를 ‘아래’라 하였다.

‘위/아래’는 대상들 사이에 지각되는 공간적 상하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 대상 자체 내의 상하부분을 지정하기도 한다.<sup>34)</sup>

63)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한국 고유의 음식들입니다. (남지심, 『담무갈4』)

33) 임흥빈(1993), 『뉴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사전』, 아카데미하우스 p467,522

34) 박경현(1985). p18

64) 굴뚝은…아래가 넓고 위가 약간 좁은 원통형이다. (고성균 홈페이지)

63)의 ‘위’는 음식의 위치를 상이라는 다른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64)의 ‘아래와 위’는 굴뚝이라는 한 대상 안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상부와 하부’를 나타내고 있다.

‘위/아래’의 공간 지정은 ‘앞/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대상이 가지는 방향성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다.<sup>35)</sup>

우선, 대상이 산이나 나무, 바위와 같이 땅 위에 돌출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대상의 중심에서 하늘을 향한 쪽이 ‘위’가 되고, 그 반대편이 상대적으로 ‘아래’가 된다.

65) 낙화암 벼랑 아래 깊숙이 숨어 있는 고란사 전경 (오마이뉴스04.11.19)

66)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곽재구, 「은행나무」)

그러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사람과 같이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상하관계는 사물의 기능적 속성이나 사람들의 습관적 인식에 의해 전형적으로 정해진다. 즉,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 쪽이 위, 바로 누워 있으면 배 쪽이 위, 물구나무를 서 있으면 다리 쪽이 위가 되는 것처럼 그때그때 하늘을 향한 쪽이 위가 되고 그 반대편이 아래가 되는 것이다.

67) 나야, 아기 고릴라. 방금 태어나 이렇게 엄마 배 위에 가만히 있다.

(조은수, 『나야, 고릴라』)

## (2)아래·밑

‘아래’는 연직선상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위치를 가리킨다. 물체에 대해서는 그 물체의 높이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쪽을 가리키게 된다. 물체의 본래적인 생김새에는 관계없이 어느 부분이 보다 땅에 가까이 있는

35) 박경현(1985). p21

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밑’은 물체의 아랫부분이나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로, 물체의 아랫부분이라는 것은 그 물체 자체에서 땅에 가까이 놓이는 부분을 말하며, 아래쪽이라는 것은 그 물체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이가 낮은 위치를 말한다.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위치를 가리키는 경우, ‘아래’의 뜻과 매우 흡사하나, 기본적으로 물체 자체의 생김새에서 땅에 가까이 놓이도록 된 부분을 가리킨다.<sup>36)</sup>

68) 사또가 버선발로 우르르 섬돌 밑으로 뛰어내려 온다. (유현중, 『들불』)

69) 곳곳에 산사태가 나면서 산 아래 주택가까지 토사가 밀려와 큰일 날 뻔한 곳도 많았습니다. (YTN 뉴스04.7.16)

70) 산 밑의 한 주택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04.3.10)

71)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68)의 ‘섬돌 밑’은 ‘섬돌보다 위치적으로 낮은 곳인 지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밑’은 ‘아래’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69), 70)의 ‘아래’와 ‘밑’은 ‘산을 기준으로 그보다 위치적으로 낮은 곳’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그러나 71)의 ‘밑 빠진 독’의 ‘밑’은 ‘독 내부의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바닥’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는 ‘아래 빠진’이라고 바꿔 쓸 수 없다.

이처럼 ‘밑’은 기본적으로 ‘물체 자체의 바닥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래’와 같이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를 가리키는 의미로서도 사용되므로 ‘아래’와 ‘밑’은 ‘유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2-2. 한국어의 상하관계어(위/ 아래·밑)의 시간적 의미

72) 한갓 기껏해야 무당의 손녀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핏줄이 몇 백년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것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절한 의병의 후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문순태, 「피아골」)

73) 그 언덕 이름은 윗대의 선배들이 그 동네 이름난 효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붙인 곳이라고 했다. (송기숙, 『녹두장군』)

74) 심방에게 굶을 의뢰할 때는 언제 어떤 사고로 빠져죽은 영혼이며, 그 윗조

36) 임홍빈(1993). p303

상들이 천도(薦度)를 위한 굿(시왕맞이)을 했는지 여부 등 집안의 사연을 알린다. ([http://gimnyeong.invil.org/haenyeo\\_museum/haenyeo\\_culture/folk\\_religion/contents.jsp](http://gimnyeong.invil.org/haenyeo_museum/haenyeo_culture/folk_religion/contents.jsp))

75) 386세대는 윗세대와 달리 호황기와 거품 경제의 ‘단 맛’을 채 맛보기도 전에 구조조정과 IMF의 터널을 또 지나고 있다. (시사주간지news+ 04.3.18)

공간적 의미로서의 ‘위’는 ‘연직선상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였다. 72)의 ‘위’는 핏줄의 역사를 하나의 연직선으로 파악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때 ‘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를 나타내며, ‘앞’이나 ‘전(前)’으로 바뀌 써도 무방하다. 한편, ‘위’의 상대적 개념은 ‘아래’가 된다. 73)의 ‘윗대’ 또한 ‘과거 세대, 상대(上代)’를 뜻하며, 역시 ‘앞대’나 ‘전대’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상대적 개념은 ‘아랫대’가 된다. 74)의 ‘윗조상’은 사고로 빠져 죽은 조상들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윗조상의 상대개념으로 ‘아랫조상’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아랫대의 조상’이란 말이 주로 쓰인다. 이는 ‘조상’이라는 말 자체에 ‘선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75)의 386세대란 3,40대의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세대를 이르는 말로, 이 예문에서는 그들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을 ‘윗세대’라 하고 있다.

한편, ‘위’가 미래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76) 한지형 마늘 재배시 웃거름을 주는 횃수를 줄이고 밑거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신문04.9.17)

‘웃거름’이란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한 후 뿌리는 거름으로, 뒷거름’이라고도 한다. 씨를 뿌린 위에 뿌려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웃’은 공간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뒷거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뒤’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웃거름은 한자어로 ‘추비’(追肥) 혹은 보비(補肥)라 하는 것<sup>37)</sup>을 보면, ‘과중하고 난 후의 추가나 보충’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더욱 확연해진다.

37) 이희승(1989), 『민중옛센스국어사전』, 민중서림.

이처럼 ‘위’는 시간적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드물게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다. 공간개념에서는 상부(上部)라는 단일 의미를 가지는 말이 시간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서로 배타적인 시제인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인간의 공간인지습관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인지습관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다음으로 ‘아래’의 시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 한국어의 ‘아래’는, 앞의 73), 74)의 예를 통해 ‘위’의 상대적 개념으로 ‘아래’, ‘아랫대’가 ‘이후, 미래’의 뜻으로 사용됨을 언급한 바 있다. 아래의 예도 ‘아래’가 ‘미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77)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서로 존중합니다.

‘아랫세대’는 ‘윗세대’와 의미적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윗세대에 비해 이후, 미래에 사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한편, 상하개념어 중 ‘아래’와 유의관계에 있는 ‘밑’ 역시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

78) 세밑이 가까워 오니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부쩍 간절해지기까지 하였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79) 내가 시집오니까 할아버지가 추석 밑에 물고추를 한 가마씩 사서  
(『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18.』)

80)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려서 기둥을 떼고, 가늘게 채썰어 참기름과 소금, 설탕으로 밑간을 한다.  
(『여성동아 2000.2』)

78)의 ‘세밑’은 ‘설이 되기 전’, 즉 연말을 뜻하며 ‘설밑’이라고도 한다. 79)의 ‘추석 밑’도 ‘추석이 되기 전’, 80)의 ‘밑간’ 역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에 미리 해 놓는 간’이란 뜻으로 시간적으로 ‘미리, 이전’을 뜻한다. 이 외에도 ‘밑거리’(단청할 때, 건물에 먼저 한 벌 바르는 옅은 녹색의 채색), ‘밑말’(미리 다짐하여 일러두는 말) 등 시간적으로 ‘미리, 이전’으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다. 이는 유의어인

‘아래’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과 상반된다. 그러나 이처럼 밑이 ‘과거’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기본의미의 작용에 기인한다. 밑바닥은 다시 말해 기초부분에 해당하며, 어떤 일을 할 때 기초는 시작되는 시점 혹은 준비 시점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밑’은 시간적으로 ‘미리, 이전’이라는 ‘과거’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밑’과 ‘아래’는 공간을 지시하는 기본적 의미에서는 유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간적으로는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상부를 뜻하는 공간개념어 ‘위’는 시간적 개념으로 쓰일 때에는 ‘과거’ 혹은 ‘미래’ 두 시제를 전부 나타낼 수 있긴 하나 주로 ‘과거’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하부를 뜻하는 ‘아래’는 ‘미래’를, ‘밑’은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가 과거가 되고 ‘아래’가 ‘미래’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박경현(1985)은 인간이 ‘위/아래’라는 공간을 인지할 때 ‘위’를 먼저 인지하는 습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중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작용하며, 사람이 서 있을 때, 지면 위의 공간은 눈, 귀, 감촉으로 지각하기 쉽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어떤 대상의 순서를 매길 때 지각하기 쉬운 요소가 ‘먼저’라는 심리기제가 적용되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도 결과가 남아 확인 가능한 ‘과거’ 쪽이 인지하기 쉬우므로 ‘위’는 ‘과거’에 대응시키고, ‘아래’는 ‘미래’에 대응시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공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식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인지습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가 ‘미래’의 의미로 사용되고, ‘밑’이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 2-2-3. 일본어의 상하관계어(うへ/した)의 공간적 위치

공간개념어는 세계 모든 언어의 보편소 중 하나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일본어의 상하관계어 역시 지시하는 내용은 한국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장에서는 반복적 설명을 피하기 위해 어원과 기본적인 예만 확인하기로 한다.

‘うへ’(上)는 옛형태 우나가 변한 것으로, した(下),うら(裏)와 의미대립을 이루는 말이다. ‘うへ’의 가장 오래된 뜻은 ‘표면’의 뜻이다. 거기에서 ‘사물의 위쪽, 높은 위

치' 등으로 의미가 전개된 것이다. 또한 'した'(下)의 본래 뜻은 '위에 무언가 다른 물건이 더해진 결과, 감추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곳'이다.<sup>38)</sup>

81) それ以前のキリスト教会では、祈る時は両手を高くうえにあげていた。

(阿部謹也『逆光のなかの世界』)

(그 이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양 손을 위로 높이 올렸었다.)

82) 元気よきよならのあいさつをした私の声は、無言でしたを向いていた生徒たちの頭の上をスーッと通りすぎてしまった。

(小さな親切…)

(기운차게 작별인사를 한 내 목소리는 말없이 아래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머리 위로 스 지나가 버렸다.)

83) 富士山は雲の上にそびえている。

(『日語日作文大辞典』)

84) もっとうえを見てごらん。

(森田良行, 『基礎日本語2』)

( 좀 더 위를 봐봐.)

85) まだつたないよちよち歩きで不安定なソファのうえを歩き出し、体がバランスを崩しました。

(小さな親切…)

(아직 서툰 아장걸음으로 소파 위를 걷기 시작하더니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81)은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하늘 쪽을 'うえ'라 하고, 82)에서는 대지 쪽을 'した'라 하여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관련지어 상하를 파악하였다. 83), 84)는 특정한 높이의 기준을 세워 그 기준보다 높은 곳을 'うえ', 낮은 곳을 'した'로 보는 예이다. 83)에서 구름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높은 곳을 'うえ'라 하고, 84)에서는 시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높은 위치를 'うえ'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상하 판단의 기준은 그 때의 화자의 시선의 위치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또 'うえ'는 85)와 같이 표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표면 역시 하늘을 향한 쪽이 된다.

'うえ/した'의 위치 지정은 대상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어의 상하개념어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 2-2-4. 일본어의 상하관계어(うえ/した)의 시간적 의미

38) 大野ほか(1974). p608

‘うえ’가 시간개념으로 사용될 때 ‘과거’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86) 時代をうえにさかのぼる。  
(시대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86)의 ‘うえ’는 ‘さかのぼる’(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상대적인 의미로 ‘\* 時代をしたに降りる’(시대를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다음의 예는 ‘うえ’가 시간적으로 ‘미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87) 十分な考慮のうえの回答 (広辞苑5版)  
(충분한 고려를 한 이후의 회답)

88) こっちの状況をうまく把握したうえで動いている。 (宮部みゆき…)  
(우리 쪽 상황을 잘 파악하고서 움직이고 있다)

89) 20日からの合宿には必ず参加しますと確約したうえで、やっと休みをとることを許してもらった。 (宮部みゆき…)

(20일부터 열리는 합숙에는 꼭 참가하기로 약속한 후에야 겨우 휴가를 허락받았다)

87)에서는 ‘고려를 하는 것’과 ‘회답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고 그 이후 회답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88)의 ‘움직이는 것’은 ‘상황파악이 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89)에서는 ‘휴가를 허락받는 것’이 ‘약속하는 것’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처럼 ‘うえ’는 전향과 후향의 두 사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시간적으로는 ‘미래’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うえ’는 후향을 이루기 위해 전향을 필연적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sup>39)</sup> 전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うえ’라는 공간개념은 반드시 공간상 하부(下部)를 의미하는 ‘した’라는 개념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기

39) 砂川有里子(2000), 「空間から時間へのメタファー—日本語の動詞と名詞の文法化—」 『空間表現と文法』, くろしお出版. p129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도 ‘아래’가 받쳐지지 않으면 ‘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상하 공간개념의 기본적 특성이 시간으로도 이어져 전향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후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공간상 하부를 나타내는 ‘した’의 시간적 쓰임을 살펴보자.

‘した’는 단독으로 시간표현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두사로 쓰여 단어에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단어는 ‘した’가 접두사로서 ‘이전, 미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들이다.

90) したごと(下仕事), したごしらえ, したそうだん(下相談), したげいこ(下稽古), したしらべ(下調べ), したあじ(下味)…40)

‘したごと’와 ‘したごしらえ’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를 뜻하는 말이고, ‘したそうだん’은 ‘본 상담 전에 미리 해두는 상담’을 뜻하며, ‘したげいこ’는 ‘본무대에 올리기 전에 하는 연습’을 뜻한다. ‘したしらべ’는 ‘예비 조사 혹은 연습’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したあじ’는 ‘요리 재료에 미리 조미료나 향신료로 간을 해 두는 것, 즉 밑간’의 뜻을 갖는 말이다. 이러한 경우 ‘した’는 접두사로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 즉, ‘상대적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した’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 추후 본격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는 원래 ‘した’가 ‘うゑ’라는 개념과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した’가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많은 것에 비해 ‘미래’로 사용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91) うまいことを言うしたからぼろを出す。 (広辞苑第5版)

(그럴듯한 말을 한 직후 거짓이 탄로나다)

91)은 ‘した’가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의 뜻이며, 후향의 사건은 전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건시는 ‘미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

40) 예 91)은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이러한 용법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 머지 않아 폐어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sup>41)</sup>

이상에서 보자면 した는 대부분 ‘과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상하개념어에서는 ‘うえ’를 ‘과거’로, ‘した’를 ‘미래’로 파악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반면, ‘うえ’를 ‘미래’로, ‘した’를 ‘과거’의 미로 사용하는 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2-2-5. 한·일 상하관계어의 비교대조

이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하관계어 ‘위/아래·밑’, ‘うえ/した’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현대 한·일 상하관계어의 시간적 의미

	과거	미래
위	○	△
うえ(上)	△	○
아래	×	○
밑	○	×
した(下)	○	△

○ : 용례가 많고 일반적

△: 용례가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거나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음

×: 용례가 없음

①한국어에서 공간적으로 상부를 나타내는 ‘위’는, 시간상 대부분 ‘과거’를 나타내고, 드물게 ‘미래’를 나타내며, 일본어에서 상부를 나타내는 ‘うえ’는 한국어와 반대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소수 있다.

②한국어에서 공간적으로 하부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래’와 ‘밑’으로 분화되어 시간적으로는 각각 ‘미래’와 ‘과거’ 의미로 쓰이며, 일본어에서 하부를 나타내는 ‘した’는 시간적으로 대부분 ‘과거’를 나타내고 드물게 ‘미래’를 나타내는 예도 있다.

41) 10인의 일본인에게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다.

③일본어의 경우 ‘うゑ가 ‘이후’라는 ‘미래’의미를, ‘した’가 ‘과거’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발달하여 한국어와 다소 상반된 경향이 드러난다.

## 2-3. 내외관계어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표면을 기준으로 자신을 다른 외부 존재들과 구별짓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피부)를 기준으로 내외관계를 구별짓는 하나의 그릇(컨테이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물건 역시 그릇으로 간주하여 내외관계를 파악한다.<sup>42)</sup> ‘방’과 같이 경계가 분명한 것이나, ‘영향권’, ‘주님’ 같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나 구체적 공간을 갖지 않는 개념조차 하나의 그릇으로 파악하여 내외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내외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공간개념어 중 한국어의 ‘안’과 일본어의 ‘うち’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2-3-1. 한국어의 내외관계어 (안)의 공간적 위치

‘안’은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곳이나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sup>43)</sup>을 가리키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여, ‘밖’과 의미대립을 이룬다.

92) 씹싸름하면서도 정갈한 국화 향기가 입 안에 가득 찼다.

(남지심, 『담무갈4』)

93) 지효스님이 안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남지심, 『담무갈4』)

94) 오랫동안 그 영상에 잠겨 있던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손 안에 놓인 호박 단주를 내려다보았다.

(남지심, 『담무갈4』)

92)는 입술로 닫혀진 구강의 내부 ‘안’이라 하고 있고, 93)의 ‘안’은 둘레가 되는 경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대상이 있는 건물의 내부임을 짐작할 수 있다. 94)에서는 손이라는 영역 내부를 ‘안’이라 하고 있다.

42) G. Lakoff, M. Johnson(1995)는 이것을 ‘컨테이너 은유’라 하였다.

43) 김민수(1997). p701

어떤 대상이 경계로 둘러싸인 공간의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대상은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공간의 둘레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이 내부의 어느 위치에 있든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95) 일행도 자연스럽게 중문 **안**으로 들어갔다. (남지심, 『담무갈4』)

96) 나중에 온 아이들은 이 금 **밖**으로 나가 앉어요. 떠들지 말구.

(심훈, 「상록수」)

97) “이 봐.” 하고 도둑이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말했다. “너 지금부터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와 봐. 알지?”하고 위협을 했다. (국제신문04.8.15)

위의 예들은 사방 둘레가 아닌 각각 문과 금이라는 선이나 면적인 기준으로 경계의 한 쪽을 ‘안’으로 규정하였다. 95)는 중문을 중심으로 본채 건물이 있는 쪽을 ‘안’으로 표현하였다. 문이라는 면이 경계를 만들었지만 그 면에 의해 본채 건물 쪽으로 사방 둘레가 심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96)은 그어 놓은 금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쪽을 ‘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은 금을 중심으로 방의 구석 쪽을 ‘안’이라 하였다. 이 두 예문에서도 금을 그음으로써 심리적으로는 사방경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닫힌 공간이 형성되어 ‘안’이라는 영역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96)에서는 금을 경계로 화자가 속한 쪽을 ‘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97)에서는 화자가 없는 쪽이 ‘안’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선이나 금과 같이 경계가 일차원인 경우 ‘안’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갖기 보다는 상황지시적으로 결정된다.<sup>45)</sup>

이상과 같이 ‘안’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장소의 경계표지를 기점으로 그 내부와 외부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계가 선이나 금과 같이 1차원인 경우는 화자의 자기중심적 인식에 따라 상황지시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

44) 박경현(1985). p108

45) 이지영(1989), 「 {안/속/밖/겉} 의 언어학적 분석 », 『제호 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p156

## 2-3-2. 한국어의 내외관계어 (안)의 시간적 의미

98) 6개월 안에 중동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내일신문04.11.12)

99) 적은 약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04.06.01)

100) 스물 아홉에 삶을 마감했으니 그가 남긴 어느 작품이든 서른 안에 썼다는 얘긴데...

(조선일보04.9.24.)

101) 나는 서른 다섯 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98)은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 때 ‘안’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와서 ‘제시된 기간 동안에,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99)의 ‘빠른 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며칠 혹은 몇 시간’이라는 범주처럼 구체적인 기간화 하고 있는 것이다. 100)의 ‘서른 안’은 ‘김유정이 작품을 쓰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서른 살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나이를 넘기기 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서른이 되기 전 즉, 스물 아홉까지를 범위로 한다고 보기도 한다.<sup>46)</sup> ‘서른 안에 결혼해야지’라고 할 때 ‘서른이 되기 전’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한국인의 문화적 습관상 스물 아홉이나 서른 아홉 등 ‘아홉’이 들어 있는 나이는 ‘아홉수’라 하여 결혼을 금기시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서른은 만으로 스물 아홉에 해당한다.) 아홉이란 수가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른 안에 결혼하다’는 ‘스물 아홉까지’만으로도 인식되는 특별한 한국인만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101)의 경우는 100% ‘서른 다섯’까지 포함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100)도 ‘안’이 서른이란 경계를 원칙적으로는 포함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음의 예는 ‘안’이 ‘기준시 이전’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102) 수난녀는 보름 안날 저녁에 지은 오탁밥을 한 숟가락씩 쥐 보냈다.

(오유권, 『대지의 학대』)

위의 예에서 쓰인 ‘안날’은 ‘바로 전날’이란 뜻이므로 예문의 ‘보름 안날 저녁’이

46) 15명 중 8명이 ‘스물아홉까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란 ‘보름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 저녁’을 의미한다. ‘안달(바로 전달)’, ‘안해(지난 해)’의 ‘안’도 ‘기준이 되는 시간 이전’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쓰인 예이다.

그러나 ‘안날, 안달, 안해’ 등은 혼종어인 ‘전날, 전달, 전해’ 등에 밀려 일상에서 사용되는 바가 거의 없다.<sup>47)</sup>

‘안’은 이처럼 ‘제시된 기간 동안’ 혹은 ‘기준시 이전’이라는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원칙 하에서 보자면 두 가지 의미는 모순되지 않는다.

공간개념어 ‘안’이 이처럼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인간이 일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 내부 공간을 ‘안’이라고 인지하는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Lakoff 등(1995)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세상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개체로(안쪽과 바깥쪽을 지니 그릇으로)경험한다. 또한 외부의 사물을 개체로(역시 안팎을 지닌 그릇으로) 경험한다. 인간은 물질(예를 들면 살과 뼈)로 만들어진 존재로 경험하고 외부의 사물을 다양한 물질(예를 들면 숲, 돌, 금속 등)로 만들어진 것으로 경험한다. 시각과 촉각을 통해 많은 사물이 뚜렷한 경계를 지녔다고 경험하고, 또 사물이 뚜렷한 경계를 전혀 지니지 않았을 때에는 흔히 그 사물에 경계를 투사한다. 즉, 그 사물을 개체로, 그리고 흔히 그릇(컨테이너)으로 영역화한다. 시간도 움직이는 물체처럼 파악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물체와 그 물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에 근거한다. 동일한 상관관계가 시간을 그릇(컨테이너)으로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 물체가 통과한 한정된 공간은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sup>48)</sup>

### 2-3-3. 일본어의 내외관계어(うち)의 공간적 위치

‘うち’는 옛 형태 ‘ウツ’(内)가 변화한 것으로, 고어에서는 ‘ト’(外)와 의미대립을 이루었다. ‘うち’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친근한 구역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정 거리를 심리적으로 구획을 지은 선의 앞쪽, 혹은 경계로 둘러싼 속 부분이다. うち영역은 타인에게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

47) ‘안날, 안달, 안해’에 대해 한국인 1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48) Lakoff & Johnson(1995). p99

움직일 수 있는 영역으로, 그 선 너머의 소원(疎遠)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한다.<sup>49)</sup>

‘うち’는 중심이 되는 사람의 힘으로 감싸고 있는 범위라는 느낌이 강하여, 유의어 ‘なか’가 단순히 ‘상중하의 중 즉, 사물과 사물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이’를 지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03) 屋敷のうちから一步も出ない。(渡辺実, 「所と時の指定に関わる語の幾つか」)<sup>50)</sup>  
(저택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다.)

104) 電気が消えてうちも外も真っ暗です。 (『기초일본어학습자사전』)  
(전기가 나가서 안도 밖도 깜깜합니다.)

105) 白線のうちがわにお下がりください。(渡辺実…)  
(흰 선 안쪽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103)에서는 屋敷라는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うち’라 하고 104)에서는 ‘うち’와 ‘そと’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기가 꺼진 어떤 대상 공간의 내부를 ‘うち’, 외부를 ‘そと’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경계로 하여 닫혀진 공간의 경우 ‘うち’는 본질적으로 지정되어진다.

105)의 경우는 입체적 공간이 아니라 선에 의해 한 쪽이 경계 지어진 공간의, 그 경계에서 청자 쪽으로 들어간 방향을 ‘うちがわ’라 하였다. 白線이라는 일직선의 경계선이 그어짐으로써 좌우나 뒤에도 경계가 있는 닫힌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うちがわ는 기본적으로 나와 친근한 방향, 내가 있는 공간이다.<sup>51)</sup> 駅측에서 보자면 승객 편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うちがわ라 하고 있는 것이며, 승객은 자기 쪽에서 자연스럽게 うちがわ를 안전구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うち’의 공간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うち’는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경계선을 중심으로 자기 쪽 영역을 지시하는 공간개념어인 것이다.

#### 2-3-4. 일본어의 내외관계어(うち)의 시간적 의미

49) 大野晋ほか(1974). p162

50) 이하 (渡辺実…)로 표시하기로 한다.

51) 牧野成一(2001)는 ‘うち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의 영역, 친구들이 있는 곳,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곳, 주눅 들지 않는 곳이며…うち공간은 자기가 직접 거기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마음대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공간, 즉 공통감각의 공간이라 하였다. p21

106) 今日のうちに草加へ行く。 (宮部みゆき…)

(오늘 안에 草加에 갈 거니?)

107) その七年のうち、どこかで再会したかも知れない。 (宮部みゆき…)

(그 7년 동안에 어디에선가 다시 만났을 지도 모릅니다)

108) 早口のやり取りを続けるうちに、新田さんの表情がどんどんしぼんでいった。

(宮部みゆき…)

(빠른 말투로 대화하는 동안 新田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다)

109) ランボアの盛大な銃撃戦を觀ているうちに、僕はひょいと思出したのだ。

(宮部みゆき…)

(람보의 격렬한 총격전을 보고 있는 동안에 펄떡 생각난 것이다)

위의 예문은 모두 ‘うち’가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106), 107)에서는 사건이 ‘오늘’과 ‘7년’이라는 ‘제시된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 108), 109)의 경우는 ‘うち’가 ‘続ける(계속하다)/ -ている(-고 있다)’ 라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10) 若いうちが花だ。 (森田良行, 『基礎日本語2』)

(젊을 때가 좋을 때이다)

111) 冷めないうちに、どうぞ。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위의 예는 상황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를 허용 범위로 한다. ‘うち’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의 예들은 ‘うち’의 범위가 ‘경계로 삼은 시점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うち’의 범위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예도 있다.

112) うちがし(内貸し), うちがり(内借り), うちばらい(内払い), うちきん(内金)… 52)

위의 예들은 ‘うち’가 접두사로서 ‘정해진 기일 이전’ 다시 말해 ‘기준시 이전’이

52) 예112)는 新村出(1995)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뜻을 가지는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うちきん’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는 예가 적으며<sup>53)</sup>, 각각 ‘前貸し, 前借り’, 前払い’로 표현하는 예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안날’ 등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현상과 비슷하다.

‘うち’가 ‘한정된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것도 ‘정해진 기일 이전’을 나타내는 것도 결국은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원칙 하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개념어 ‘うち’가 이처럼 시간적 의미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うち’를 한정된 영역의 내부로 인지하는 일본인들의 습관이 시간개념에도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공간적으로 ‘うち’가 어떤 방의 내부를 지시한다면, ‘今日のうち’라는 시간 표현도 ‘今日’라는 시간의 방의 내부를 나타낸다. 이때 ‘今日’라는 방은 ‘明日’라는 옆의 다른 방과 구별되는 한정된 공간이다. 이처럼 ‘うち’의 시간적 용법은 ‘うち’의 공간개념을 인지하는 습관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다.

### 2-3-5. 한·일 내외관계어의 비교대조

이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내외관계어 중 내부를 나타내는 ‘안’과 ‘うち’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3) 현대 한·일 내외관계어의 시간적 의미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
안	○
うち(内)	○

①일정한 경계나 둘레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지시하는 ‘안’은 기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제시된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혹은 접두사로서 ‘기준시 이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기준시 이전’의 의미는 현대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②일정한 경계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지시하는 ‘うち’는 한국어의 ‘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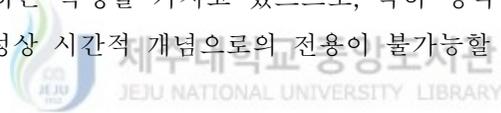
53) 일본인 1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단 한명만이 일상에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단, 内金에 대해서는 5명이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달리, 기간의 뜻을 갖는 명사뿐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품사들과 함께 쓰여 ‘그 기간 동안’의 뜻을 나타낸다. 또한 접두사로서 ‘기준시 이전’의 뜻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예는 거의 드물다.

③‘안’과 ‘うち’는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된다.

④‘안’과 ‘うち’가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이 모든 사물을 그릇(컨테이너)으로 보아 그 내외를 파악하듯 시간도 마치 컨테이너처럼 영역화하여 인지하는 습관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내부를 지시하는 공간개념어 ‘안’과 ‘うち’가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반해 외부를 나타내는 ‘밖’과 ‘そと’는 시간적 의미로 전용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내부개념은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나타내기에 그러한 특성이 바탕이 되어 시간적 전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밖’은 사방으로 개방되어 공간적으로 특정 범위를 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만큼 인지하기 어렵다. 시간은 어느 한 시점을 지정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딱히 영역을 제한할 수 없는 외부개념어는 그 속성상 시간적 개념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sup>54)</sup>



---

54) 渡辺実(1995). p27

### Ⅲ. 결 론

이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공간개념어 중 전후관계어, 상하관계어 내외관계어의 공간적 위치와 시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어의 전후개념어 ‘앞’과 ‘뒤’, 일본어의 전후개념어 ‘まえ·さき’(전방), ‘しろ·あと’(후방)는 각각 시간적 의미로도 전용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앞’과 ‘뒤’는 공간적으로는 서로 대립을 이루지만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시하기도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본어의 ‘まえ’나 ‘あと’, ‘さき’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으로 파악하느냐, 그 반대흐름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인지적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화자와 서로 마주보고 흐른다는 인지습관에 따르면 ‘앞’이나 ‘まえ·さき’가 ‘과거’, ‘뒤’와 ‘あと’가 ‘미래’를 나타내고, 시간이 화자가 향한 방향과 평행하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고 보는 인지습관에 따르면 ‘앞’과 ‘さき·まえ’가 ‘미래’, ‘뒤’와 ‘しろ’가 ‘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2)공간적 상하개념은 시간적 의미로도 전용되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공간적으로 상부를 나타내는 ‘위’는, 시간상에서는 대부분 ‘과거’를 나타내고, ‘아래’와 ‘밑’은 각각 ‘미래’와 ‘과거’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일본어의 ‘うへ’는 대부분 ‘미래’의미를 나타내고, ‘した’는 대부분 ‘과거’ 의미를 나타내어 한국어와 대체적으로 대립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3)일정한 경계에 의해 한정된 공간의 내부를 나타내는 ‘안’과 ‘うち’는 시간적 용법으로도 전용된다. ‘안’과 ‘うち’는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물을 컨테이너처럼 영역화하여 내부와 외부로 파악하는 인지습관이 시간에도 투영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이 전후, 상하, 내외관계어는 각각의 공간을 인지하는 습관이 그대로

시간적 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공간개념어 중 상대적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말들의 시간적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인지의미론적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 못하였다. 특히, 상하관계어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경향성의 인식론적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1. <논문>

임지룡(1980), 「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개념」 『국어교육연구』 12,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박경현(1985), 「현대국어 공간개념어의 의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선희(1988),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 7,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지영(1989), 「{안/속/밖/겉} 의 언어학적 분석」 『제효 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민현식(1990), 「時間語와 空間語의 相關性」 『국어학』 20, 국어학회.

양경모(2000), 「内外의 공간개념과 은유적 확장」 『일본어문학』 8, 한국일본어문학회.

吉本一(2002),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담화와 인지』 제 9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初山洋介(1992), 「多義語の分析—空間から時間へ—」 『日本語研究と日本語教育』, 名古屋大学出版会.

初山洋介(1995), 「多義語のプロトタイプの意味の認定の方法と實際」 『東京大学言語学論集』 14.

渡辺実(1995), 「所と時の指定に関わる語の幾つか」 『国語学』 181, 国語学会.

定延利之(1999) 「空間と時間の關係—「空間的分布を表す時間語彙」をめぐって」, 『日本語言』 18, 明治書院.

加藤弘(1999), 「韓・日語の時間表現-時間表現の矛盾を解く-」 『日語日文学研究』 34, 韓国日語日文学会.

砂川有里子(2000), 「空間から時間へのメタファー—日本語の動詞と名詞の文法化-」 『空間表現と文法』, くろしお出版.

### <단행본>

森田良行(昭和50),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오예옥(2004),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이기동(1981), 『문법이해론』, 범한서적주식회사.  
 Lakoff & Johnson(1995),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 외 옮김), 서광사.  
 牧野成一(2001), 『空間의 言語文化學』, 제이앤씨.  
 中右実(1994), 『認知意味論の原理』, 大修館書店.  
 山梨正明(1995) 『認知文法論』, ひつじ書房.

<사전>

大野晋ほか(1974), 『岩波古語辞典』, 岩波書店.  
 日本国語大辞典刊行会(昭和50),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新村出(1995), 『広辞苑』 第5版, 岩波書店.  
 이희승(1986), 『대국어사전』, 민중서림.  
 安田吉実, 손낙범 외(2001), 『옛센스일한사전』, 민중서림.  
 이희승(1989), 『민중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임홍빈(1993), 『뉘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출판부(1997), 『日語日昨文大辞典』, 한국사전 연구사.  
 김민수(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예문발취>

阿部謹也, 『逆光のなかの世界』,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  
 小さな親切運動本部編(2004), 『涙が出るほどいい話』 第九集, 河出書房新社.  
 宮部みゆき(1998), 『今夜は眠れない』, 中公文庫.  
 戸部けいこ(2001), 『光とともに』, 秋田書店.  
 志賀直哉(1998), 『和解』, 시사일본어사.  
 오유권(1964), 「대지의 학대」 『문학춘추』, 문학춘추사.  
 문순태(1994), 『타오르는 강』, 창작과 비평.  
 목수현 편집(1992), 『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18.』, 뿌리깊은나무.  
 심훈(1995), 「상록수」 『중학생이 알아야할 소설 2』, 신원문화사.  
 남지심(2001), 『담무갈4』, 푸른숲.  
 조은수(2004), 『나야, 고릴라』, 아이세움.  
 송기숙(1991), 『녹두장군』, 창작과 비평사.

문순태(1981), 「피아골」 『한국문학』, 한국문학.

유현중(1995), 『들불』, 열린세상.

조엔 롤링(2003),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5-1, 문학수첩.

이문희(1963), 「흑맥」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이승헌(2002), 『단학』, 한문화.

조정래(2001), 『태백산맥』, 해냄출판사.

최인훈(1991),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시사주간지news+, 여성동아, 조선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국제신문, 농민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YTN 뉴스, 연합뉴스, 고성군 홈페이지.

<http://www.kwba.or.kr/info/info02.htm>

[http://gimnyeong.invil.org/haenyeo\\_museum/haenyeo\\_culture/folk\\_religion/content.ts.jsp](http://gimnyeong.invil.org/haenyeo_museum/haenyeo_culture/folk_religion/content.ts.jsp)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of Time between Korean · Japanese Spacial Concepts

Kyeong-sook Ko

Department of Japa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Chang-ik Lee

Time has abstract concepts without form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ime, compared with space. So people borrow some conceptual words of space when they express time because the conceptual words of space are easier.

When conceptual words of space represent the meaning of time, the scope of space forms the primary meaning, expanding into the scope of time. Such a change of meaning is related with the ability of senses which can recognize the outsid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extension of words in meanings among the spacial concepts of words between Korean · Japanese. with regard to human basic habits of space recognition.

The words which express 'before and after' like 'まえ・さき', 'うしろ・あと' in Korean · Japanese can often be transmitted into the meaning of time. On the contrary, Korean words, 'before' and 'after' can designate 'past' and 'future' at the same time. This is true of the Japanese words like 'まえ・さき', 'うしろ・あと'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the recognitive habit whether time passes from past to future or vice versa.

In case time passes from future to past, 'before' and 'まえ・さき' mean 'after' and 'あと' which represent 'future'. According to the recognitive habit of time passing from past to future, 'before' and 'まえ・さき' represent 'future'. 'after'

and 'うしろ' mean 'past'.

The words which mean above and below in Korean · Japanese can be transmitted into the meaning of past and future. The word 'above' means 'past' in time. On the contrary, 'below' means 'past' and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うえ' means 'future' while 'した' means 'past'.

'うち' in Korean · Japanese change into the usage of time which means 'before the end of time'. This is the result of the recognitive habit trying to reflect the recognitive habit on time.

